

대학생들의 성차의식이 성과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홍 기 원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성차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대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중에 유리했던 경험과 불리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우리 나라에서 겪는 남녀구분에 따른 사회적 유리와 불리한 특징들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녀 두 집단별로 일상생활에서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상대로 남성에서의 유리한 점과 여성에서의 불리한 점들이 더 많이 부각되었다. 또 이러한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면 남녀가 한 동일한 과제를 한 성과에 대한 평가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성 집단에 대한 만족 등 정신적 안녕감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성과평가지 남성집단의 성과를 높게 보는 성과편파는 보이지 않았으나 자신이 속한 성에의 애착심이나 만족감은 남성집단에서 더 높았다. 지속적으로 남녀가 느끼는 유리 혹은 불리한 점을 양성이 이해하도록 하는 성차별 방지 교육을 한다면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성과편파를 보이지 않으리라는 점과 남녀평등을 통한 여성인력의 활용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다. 성과편파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기제들과 우리보다 남녀평등이 더 잘 구현된 선진국에서의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I. 문제제기

우리 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속히 떨어지면서 정부가 출산율 하락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부는 출산,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쿠

폰을 지급하는 '보육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현재 1.42명에 불과한 출산율을 1.60명까지 끌어올리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 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치인 1.53명을 밀도는 1.42명으로 지난 70년에 4.53명이던 우리 출산율은 출산억제정책으로 83년에 2.1명으로 줄어들었고 30여 년만에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출산율 하락이 장기

적으로 노동력 부족은 물론 젊은 층의 감소와 노인층 증가에 따른 연금기금 고갈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매일경제, 2001. 8. 19). 이에 그동안 사장되어 온 여성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과 산업사회가 다원화되고 4차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점에서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엔에서도 4차에 걸쳐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를 세계적인 의제로 부각시키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부의 신설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와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을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성차별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차별 의식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노마, 배성의, 1999). 우리 나라에서의 남녀평등의식을 조사한 많은 자료들은 다른 나라에서 보다 더 심한 불평등을 보고하고 있다. 김양희와 정경아(2000)는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를 통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남녀평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남녀 불평등의 원인을 찾아내어서 여성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녀대학생들이 일상생활 중에 느끼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들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이러한 불평등의 내용을 상기하게 하면 남녀가 한 동일한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편파를 보이는지 또 이러한 점들을 떠올리게 하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정체감이나 만족감 등 심리적 안녕감에도 다른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즉, 동일한 성과물을 보고도 사회

적으로 우세한 집단의 성과물을 열세한 집단의 성과물보다 더 많다고 지각하는 연구결과들(홍기원, 2000)에서 시사되듯이 여성의 성과가 남성의 성과보다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녀의 두 성 집단원들에게 그러한 성차 의식을 점화시키면, 성과편파를 줄이고 개인이나 집단적 자존심에 있어서도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먼저 동일한 성과라도 소속집단의 지위에 따라서 평가의 편파를 보인다는 연구를 개관하고 남녀의 성차 의식을 다룬 연구들을 소개하여 우리 나라 대학생 집단에서 선행연구들에서 나온 성과편파와 성차 의식의 문제를 보기로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성과지각에서의 편파

사람들에게 모호한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을 결핍된 욕구를 투사시키는 대상으로 본다는 연구들이 있다(Lambert, Solomon, & Watson, 1949). 즉 가난한 아동들이 동전의 크기를 과다하게 추정하듯이 열세집단의 성원들은 동일한 성과를 더 높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Sherif, Harvey, Hood, White 및 Sherif(1961)가 한 Robber's Cave 연구에서도 우열집단 간의 성과편파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11세 된 두 소년집단들이 경쟁적인 과제를 하여 승패를 경험한 후 두 집단들이 작업한 것으로 알려준 성과(실제로는 동일)를 보여주고 이를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서로 내집단이 더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지각하였는데 승리집단 보다는 패배집단에서 더 큰 편파를 보였다. 따라

서 우세 및 열세집단으로의 집단소속감이 구분되면 열세집단의 평가편파가 더 크게 일어난다고 상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동일한 집단 안에서도 내집단에 동일시하는 수준에 있어서의 개인차와 내집단 위협정도에 대한 지각에 초점을 두어왔다. 같은 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내집단에 대한 정체감의 정도가 다른 것은 각 집단 성원들의 자기-개념 속에 그 집단이 얼마나 자리잡고 있는지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Wann & Brabscome, 1993).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서 얼마나 “전형적(prototypic)”인 성원인지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Turner, 1985). 즉 어떤 성원들은 다른 성원들보다 그가 속한 집단의 기준(norms)들과 잘 들어맞으며, 어떤 성원들은 다른 성원들보다 “더 전형적인” 집단성원들의 예로 정의되기도 한다. 내집단의 전형과 부합되는 집단성원들은 핵심적(core) 내집단원이라고 할 수 있고 덜 전형적인 사람들은 주변적(peripheral) 내집단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르면 두 집단원들은 서로를 외집단으로 지각하게 되어 성과평가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남녀 집단들 간의 차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경험적인 증거들은 주변적인 성원들이 핵심적인 성원들보다도 더 외집단 격하를 보인다는 가설을 지지하여왔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은 일부 사람들의 성 정체성(性正體性)의 불안정성과 관련 있고(Herek, 1987), 같은 미국인 중에도 백인사회의 주변에 머물고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흑인들의 처지와 비슷하게 가난한 백인들이 부유한 백인들보다 더 심한 인종

편견을 보이는 경향을 보이며(Katz, Wackenhut, & Hass, 1986), 유대인들의 아랍인에 대한 인종적 태도에 있어서 유럽출신들보다 중동출신들이 더 큰 편견을 보인다는 것이다(Peres, 1971).

우리 나라에서의 성과편파를 다룬 연구 중에는 대학생들에게 수학(數學)능력을 측정한 결과를 알려주면서 이에 대한 핵심집단과 주변집단의 평가편파가 다른지를 본 연구가 있다(홍기원, 2000). 이 연구에서는 핵심과 주변집단 모두 핵심집단의 수행을 더 높게 평가하였는데 주변집단의 편파가 더 크게 나왔다. 따라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현재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으며,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각각 핵심집단과 주변집단의 지위로 볼 수 있다면 주변집단인 여성이 핵심집단인 남성과 동일한 성과를 보인다면 하더라도 여성의 성과는 남성의 성과보다 낮게 평가하는 편파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2. 남녀의 성차의식

긍정적 사회정체를 얻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자기가 속한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좋게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노골적인 내집단편애(ingroup favoritism) 효과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흔히 관찰되어 왔으나(Brewer, 1979), 때로는 그러한 것이 내집단의 이미지에 해롭다면 그러한 방법의 사용을 억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왔다. 예를 들면 핵심 집단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주변집단보다 나은 것으로 보는 생각이 비합법이라고 여기면 자신들의 집단이 이익을 본 만큼 깎아 내리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 만큼 평가절하 하였다(Helms, 1992; McIntosh, 1992; Tajfel, 1974; Van Knippenberg, 1989; Van Knippenberg & Van

Oers, 1994). 반면에 주변적 집단원들은 자신들이 높은 성과를 얻은 것이 내집단의 특이한 긍정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보게 되면 이러한 차원을 강조하거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Ellemers Van Rijswijk, Roefs & Simons, 1997; Lemaire, 1974; Mummendey & Schreiber, 1983, 1984; Spears & Manstead, 1989).

핵심 집단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오랫동안 유리한 혜택을 누려온 것이 부각되고 비합법적인 것으로 지각되면 집단에 근거한 특혜를 생각하게 하면 핵심 집단원들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집단에 근거한 불이익을 생각하게 하면 이러한 일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거나 드물게는 주변집단 성원들의 행복감을 높여 줄 것이다. 즉, 핵심 집단원들에게 자신의 집단 소속에 따른 특혜를 생각하게 하면 집단적 죄의식(collective guilt)을 일으키게 하므로 자아개념이 위협받을 수 있다(Branscombe, Slugoski, & Kappen, 1977). 더 나아가 핵심 집단원들은 주변 집단원들보다 자기 집단과의 동일시를 덜 하기 쉽기 때문에 (Mullen, Brown & Smith, 1992), 자신들의 집단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면 내집단으로부터 거리를 더 두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주변집단에서는 핵심집단이 갖는 집단에 주는 유리한 생각, 또는 불리한 생각으로 인한 정서적 결과와 반대로 나올 것이다. 주변성원들에게 있어서 불리한 점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Crosby, 1982; Crosby, Pufall, Snyder, O'Connell, & Whalen, 1989). 여성들이 자신을 성차별의 피해자로 지각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우울증이 예상되고(Kobrynowicz & Branscombe, 1997), 통제감의 감소를 가져 왔다(Ruggiero & Taylor, 1995). 따라서 자신의 성에

따른 불이익의 경험을 생각하는 것은 여성의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한 생각은 자신의 내집단과 거리를 두도록 할 것이다. 반면에 여성에게 집단에 근거한 특혜를 생각하게 하면 다른 긍정적 차원들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집단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Hogg & Abrams, 1988). 그리하여 남성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혜나 유리한 점을 생각하게 하면 집단 죄의식을 갖게 되고 집단자존감 등 집단과 관련된 심리적 자존감이 낮아지는 반면, 여성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불리한 점을 떠올리게 하면 개인적 성과에 대한 내적귀인이 강해져서 개인적 자존감이 더 증가될 수 있다(Branscombe, 1998). 이와 같이 남녀의 두 집단은 상이한 성차 의식으로 인한 성과평가 및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3. 연구문제

우리 나라의 남녀대학생들 중 남학생은 핵심 집단의 지위를 여학생은 주변집단의 지위를 누려왔다고 보고 남녀의 두 대학생 집단에서의 특혜와 불리한 점을 생각하게 하여 어느 분야에서 유리하고 어느 영역에서 불리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하도록 점화시킨 후에 남녀 두 집단원들의 성과평가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러한 점화가 개인적 행복과 집단관련 안녕감 등 정서적 측면에 다른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효과가 나오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남녀 두 성 집단원들에게 일상생활 중에 유리했던 경험과 불리

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두 가지 생각조건으로 나누게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남녀가 두 가지 생각조건들에서 떠올리는 사례들의 양과 질을 분석하였다. 앞에서 보아 오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 불리한 환경이 특히 두드러지므로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이 현저할 것이고 자존심도 낮게 나올 것이다. 다음에는 동작성성을 재는 과제를 하게 한 성과를 평가하되 남녀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생각을 점화시킴으로써 남녀의 성과편파가 줄어들 것인지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녀 두 집단에서의 특혜 및 불리한 사례들의 내용과 빈도는 다르게 나올 것이다. 즉, 남성집단에서는 불리한 사례보다 유리한 사례를 더 떠올릴 것이고, 여성집단에서는 유리한 사례보다 불리한 사례를 더 많이 떠올릴 것이다.
2. 남녀 두 집단에게 특혜 및 불리한 사례를 상기하게 하여 핵심집단의 지위가 비합법적임을 인식시키면 핵심집단의 성과를 과다 추정하는 성과평가에 있어서의 편파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3. 남녀 두 집단은 특혜 및 불리한 사례를 상기하게 하면 두 집단에서 범주별 상이한 응답패턴을 보일 것이다.
4. 우리 나라의 남녀 집단들은 특혜 및 불리한 사례를 떠올리는 반응에 있어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응답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5. 남녀 두 집단에서의 특혜 및 불리한 사례를 상기하게 하면 자존심의 지각, 내집단에의 만족과 애착에 다른 영향을 줄 것이다.
6. 남성집단에서의 유리한 사례를 상기하게 하

면 남성집단에의 자존심을 약화시키고, 여성 집단에서의 불리한 사례를 떠올리는 것은 오히려 개인적인 자존심을 높여주어 성과편파가 줄어들 것이다.

III. 연구방법

참가자 및 설계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 중인 남학생 82명과 여학생 80명이 실험 참가 시에 보너스 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하여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생활과 심리학, 성과 심리학을 수강 중인 학생들로서 인문계열과 자연 계열에 걸쳐 고른 전공분포를 보였다. 참가자들은 2(참가자의 성별) X 2(생각조건: 유리한 또는 불리한)의 피험자간 요인설계로 된 4 실험 조건에 40명 또는 41명씩 무선적으로 배정되어 참가하였다.

절차 및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 또는 여학생 집단으로만 구성된 3 내지 4명이 한꺼번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관련된 심리학 과목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참가확인을 한 후에 각 피험자들은 실험자가 무선적으로 배정한 네 개의 책상 앞에 앉도록 하였다. 책상 위에는 각 피험자가 앉은 책상의 번호가 1부터 4까지 표시되어 있었고, 각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지시문, 필기구, 그리고 각 참가자가 실험에 참가하는 동안에 지정된 1부터 4까지 표시된 명찰을 준비하여 놓았고, 피험자들이 앉은 전면에는 4명의 참가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스크린과 OHP가 설치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이 앉은 책상 뒤에는 나중에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배치하였다.

성차의식 확인: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으면 자신의 좌석번호를 알리는 명찰을 달고 컴퓨터의 엔터키를 쳐서 다음과 같은 지시문이 컴퓨터의 스크린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컴퓨터의 지시문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화면에 나오는 지시문은 별지에 인쇄하여 책상 오른쪽 위에서 보도록 하였다. 맨 처음 나오는 화면 속에는 “실험에 참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기지각과 동작민첩성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 나왔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실험자가 나눠주는 응답지에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에 나눠준 질문지에는 참가자들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겪었던 사례들 중 유리하거나 특혜를 입었던 경우와 불리했던 경우들을 3분 이내에 가능한 한 많이 적도록 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확인: 이어서 참가자들에게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였는데 화면의 지시문은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기지각을 보고자 합니다 실험자가 나눠주는 질문지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질문지들은 모두 4가지로서 우선 Luthanen과 Crocker(1992)가 개발하고 김혜숙(1994)이 번안한 집단적 자존심(collective self-esteem)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이 속한 성 집단이나 다른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어 갖는 느낌을 알아보는 것으로서 원래의 문항은 16개였으나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번안한 14개 문항에 대해

여 1-7점 척도상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Rosenberg(1965)의 10문항으로 된 개인적 자존심(personal self-esteem)을 재는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어서 자신이 속한 성 집단에의 정서적인 애착(emotionally attached to their gender group) 정도를 역시 7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는데 이 척도에서는 자신이 속한 남녀 성집단에 속해 있음으로서 얻는 가치감, 호감, 자긍심, 소속감을 재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감(satisfaction with their personal value)을 재었으며, 이 척도와 개인적 자존심, 정서적 애착도들은 모두 7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였다.

성과평가: 다음 화면에는 “이제는 여러분의 동작민첩성을 짚 차례입니다. 동작민첩성을 재는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손으로 콩알 줍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뒤에 있는 작업대로 나오게 하였다. 작업대 위에는 4명의 참가자들별로 따로 작업할 수 있도록 4개의 쟁반과 4개의 컵에 1부터 4까지의 번호가 적어 놓았다. 쟁반 속에는 약 2000개의 콩알과 1000개의 팔알들이 섞여 있었으며 컵 속에는 콩알만 넣고 팔알이 들어가면 1개당 3개씩 뺄라고 하였다. 한 번 연습시행을 한 후에 본 시행에 들어갔으며 시간제한은 30초가 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이 연습시행 중 담은 성과를 실험용 접시(살레)에 담아 자신이 작업한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하였다. 본 시행을 한 후에는 다시 각자의 책상에 앉아서 실험자가 작업한 결과를 알려줄 것이라고 하였다. 실험자는 전자저울로 각 참가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처럼 하여 각자의 성과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각 참가자의

성과를 정확히 세는 대신에 48, 49, 51, 52의 네가지 중에서 무선적으로 알려주어 평균개수가 50이 되도록 하였다. 50이라는 수치는 사전 조사에서 대학생들이 30초 동안 작업하는 콩알 수의 평균이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작업한 성과를 알려준 다음에는 마지막 화면을 보도록 하였다. “이제 여러분이 할 마지막 과제는 여러분처럼 콩알 줍기를 한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실험용 접시에 담아서 OHP로 보여 줄 터인데 이를 보고 그 개수를 추정하여 답지에 적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OHP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작업한 것으로 표시된 두 개의 성과물이 제시되었는데 두 성과물은 모두 개수가 50개로 동일하나 그 형태만 다르게 한 것이었다. 각 성과물을 보이는 그림 오른쪽 위에 남, 여로 표시하여 각 성과물이 남성 또는 여성의 것으로 알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한번에 한사람씩 개별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이 시간에 나머지 참가자들은 옆방에서 단어 잇기를 하도록 하였다. 참가자가 15초 동안 비쳐진 두 성과물의 개수를 추정하여 답지에 적어내면 실험을 종료하고 사후해명을 해주었다.

IV. 결과

회상빈도

남녀 실험참가자들에게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을 회상하게 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왔다. 남학생들은 평균 4.37개를 여학생들은 4.28개를 회상하여 두 참가 집단의 성별과 유리 및 불리의 두 생각조건들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

는 유리하거나 불리했던 기억들을 회상하는 것이 두 참가집단 별로 어려움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유리한 상황(4.44)을 불리한 상황(4.29)보다 더 많이 회상한 반면에 여학생들은 불리한 상황(4.85)을 유리한 상황(3.70)보다 더 많이 회상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유리한 상황이 더 흔함을 보여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이었다($F(1, 158)=4.25, p<.05$).

표 1. 남녀 및 조건별 회상빈도

	생각조건		
	유리	불리	계
남	4.44(1.92)	4.29(2.13)	4.37(2.02)
여	3.70(1.77)	4.85(2.12)	4.28(2.03)

성과평가

50개의 동일한 성과에 대한 남녀 두 집단의 두 생각 조건에서의 평가의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왔다. 남학생들은 46.68개로 여학생들은 47.46개로 보아 두 집단들 간에 성과평가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설 2를 지지하였다. 두 집단에서의 남학생의 성과와 여학생의 성과를 추정하게 한 결과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성과보다 여학생의 성과를 더 높게 추정하였고($F(1, 157)= 11.69, p < .01$). 이러한 경향성은 여학생 집단에서 더 높았으나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F(1, 157)= 1.879, p>. 05$). 그러나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생각하게 한 조건들 사이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조건별 성과 추정치

평가자	평가대상	생각조건	
		유리	불리
남성	남성	46.17(8.35)	45.59(8.35)
	여성	47.44(8.39)	47.56(7.80)
여성	남성	44.78(7.73)	45.38(7.80)
	여성	50.50(9.21)	49.16(9.85)

성차의식의 범주

응답자들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일상생활 중에 특혜를 받았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기술하게 한 결과 남녀별로 다른 응답패턴을 보여 가설 3을 지지하였다. 즉, 응답내용을 6가지 범주로 나누어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표 3 참조). 이 범주들은 Branscombe(1998)의 것을 따라 성역할(gender role), 당국으로부터의 대우(treatment by authorities), 재정적 문제(finances), 자유로움(freedom), 특별한 사회적 대우(special social treatment),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도움(help from others)들로 나누었다.

이들 범주들의 상세한 내용들은 대체로 남녀 두 집단에 의해 어느 한 집단에서 유리한 것은 다른 집단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성 역할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특혜를 입은 사례들은 다른 성 집단에서의 불이익을 피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성은 불이익조건에서 요리 및 청소 등 집안일을 자주하는 것을 언급했으며, 남성은 불이익 조건에서 잔디깎기와 무거운 짐 나르기 등을 자주 떠올렸으며, 여성은 그러한 무거운 짐 나르기나 다른 신체적 일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한 사례로, 남성은 이동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유리한 사례로 응답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관계당국으로부터의 대우로서 주로 경찰이나 관공서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기에 특혜를 받았거나 불리한 경험을 떠올리는 내용들이었다. 재정 및 금전문제는 남성 또는 여성에게 받는 재정 및 금전상의 손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혜조건에서는 취업에 유리하거나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이거나 연인들 간에 어느 한 성이 부담을 적게 내는 사례들이었고, 불리 조건에서는 여성 혹은 남성이기에 차량정비소에서 더 비싼 요금을 내거나 데이트에서 더 부담을 해야하는 사례들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자유로움의 범주는 특혜 및 불리 조건별로 서로 반대의 사례들이 제시되는 것으로서 특혜조건에서는 남성들은 주로 외박이나 밤길을 자유롭게 다니기, 옷차림 몸가짐의 자유, 음주 흡연의 자유 등을, 여성들은 주로 감정표현에서 자유로움이 들어가고, 불리한 조건에서는 남성들은 감정표현의 억제, 남자다움의 강요, 미용실이나 액세서리점 출입시의 타인의 시선 등을, 여성들은 성폭력, 성희롱의 공포, 외박·귀가 시간의 제약, 옷차림의 불편, 술자리의 불편 등이 들어갔다.

특별한 사회적 대우 범주에서는 사회적 제도나 관습 등에 따른 남녀별 차별적인 대우로서 남성들은 주로 집안의 기둥, 남성의 가치 및 특권 존중, 리더로 인정해주기 등을, 여성들은 레이디 퍼스트로 우선 양보 받기, 여성전용시설 및 여성 배려, 군복무면제 등 각종 책임의 가벼움, 체벌 시 적게 맞은 경험 등을 특혜 또는 이익으로 보는 반면에 불리한 사례들로서는 남성들은 집안과 사회에서의 지나친 책임과 기대, 여성에게 양보함에 따른 불이익, 상대적으로 심한 체벌을 받은 점을,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을 차별하고 비하, 지도자의 역할에서 배제, 음주흡연의 눈치, 이른 아침

가게나 택시 등의 기피 등이 들어가게 하였다. 타인으로부터의 도움 범주에 있어서는 주로 여성들이 유리한 사례로서 차량 카풀 시 유리하고, 학교나 운전교습소에서의 배려, 부모나 이웃의 더 큰 관심을 들었고,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의 불리한 점들이 포함되었다.

조건별 범주효과

참가자들의 성별과 특혜 및 불리 조건별 경험된 사례들의 수 및 비율은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Branscombe(1998)의 6가지 범주별 비율과 다르게 나와 미국문화권과 우리 문화권에서의 남녀 성 의식의 차이를 보여 가설 4를 지지하였다. 즉 미국 문화권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전 문제(24%)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적 대우(18%), 타인의 도움(17%), 성 역할(14%), 당국의 대우(14%), 자유감(13%)의 순으로 나왔으나, 우리 문화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대우(35%)가 가장 많았고, 자유감(24%), 성역할(18%), 금전문제(18%), 타인의 도움(5%) 그리고 당국의 대우(1%)로 나와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 문화권에서는 금전문제, 당국의 대우, 타인의 도움이 더 비중이 있는 반면에 한국문화권에서는 사회적 대우, 성 역할, 자유감이 더 강조됨을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참가자들은 타인의 도움과 당국의 대우가 비교적 많은 빈도를 보인데 반하여 한국 참가자들에게서는 이 두 범주의 사례가 드물게 나왔다.

남성들이 유리한 사례를 적게 한 결과는 자유로움(3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회적 대우(31%), 금전적 문제(19%), 성 역할 (10%), 그리고 당국의 대우(1%)가 가장 적게 나왔다. 한편 성 역할로서는 청소, 요리 등 집안 일을 안 해도

되며, 임신생리 등의 고통이 없고, 화장이나 외모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특혜나 유리한 경험으로 들었다. 자유로움으로서는 외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늦게 귀가하거나 자유로운 밤길, 옷차림과 몸가짐의 자유, 음주 흡연시 타인을 의식 안 하기, 자유로운 여행과 다양한 취미 등이 특혜라고 보았다. 사회적 대우 속에는 집안의 대 잇기, 남아가치 존중, 남자특권의 인정, 군복무를 통한 자긍심, 지도자로 우선 추대되기 등을 들었고, 금전적 문제로서는 취업에 유리, 아르바이트 시 더 많은 보수, 목욕비의 저렴 등을 들었다.

여성들에게 유리한 사례는 사회적 대우(3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 역할 (30%), 금전 문제(16%), 타인의 도움(8%), 그리고 자유로움 (2%)은 가장 적게 나왔다.

사회적 대우 속에는 여성으로서 우선 양보를 받으며, 여성 전용시설 등 특별한 배려가 주어지고, 군 면제 및 각종 책임이 적은 반면, 가족·이웃으로부터 더 사랑과 주목을 받는 것들이 나왔다. 성 역할 속에는 힘들고 무거운 짐 안 들기, 여행시 짐 적게 들기, 요리·자수 등 여성적 일을 즐기 등이 들어있었다. 금전적 문제 속에는 미팅이나 데이트시 비용을 적게 내기, 여성의 더 많은 아르바이트 기회 등을 들었고, 타인의 도움 속에는 카풀 등 시 여성에게 유리한 것, 이성친구, 학교, 학원, 교습소 등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배려나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표 3. 참가자의 성별과 생각조건에 따른 사례들의 비율

내용범주	생각조건	
	특혜	불리
참가자의 성별		
성역할(18%)		
남	19(10%)	74(42%)
여	42(30%)	20(11%)
당국의 대우(1%)		
남	2(1%)	0(0%)
여	0(0%)	1(1%)
금전문제(18%)		
남	38(19%)	21(12%)
여	23(16%)	30(16%)
자유감(24%)		
남	77(39%)	33(19%)
여	3(2%)	49(26%)
사회적 대우(35%)		
남	61(31%)	45(25%)
여	52(37%)	56(46%)
타인의 도움(5%)		
남	0(0%)	3(2%)
여	12(8%)	0(0%)

주. 각 범주별 조건에 따른 회상 사례의 수 및 비율

남성들의 불리한 사례로서 가장 많이 나온 범주는 성역할 (42%)이었고, 그 다음은 사회적 대우 (26%), 자유로움 (19%), 금전적 문제 (12%), 그리고 타인의 도움 (2%)이 가장 적게 나왔다. 성역할로서 불리한 사례들로서는 군 입대를 통한 장기간 개인발전의 어려움, 각종 업무에서 힘든 일의 남성 우선, 가족 부양 등의 무거운 짐 등을 들었고, 사회적 대우 속에는 여성을 우선 배려하고 양보하기, 과도한 책임을 강요받고, 각종 모임이나 업무를 주도해야 하여 같은 실수·과오에 대한 체벌에서도 여성보다 더 심하게 받은 경험을 들었다. 자유로움의 범주에서는 남성이기에 감

정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미용실이나 액세서리 가게를 이용시 눈치를 보아야하는 점 등을 들었다.

금전적 문제 범주 속에는 미팅, 데이트 비용의 남성 부담, 군 입대를 통한 여성보다 늦은 사회진출, 나이트에 가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술값 부담 등을 들었고, 타인의 도움 속에서는 카풀 등 시에도 여성보다 불리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여성들이 불리한 사례로서는 사회적 대우 (4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유로움(26%), 금전적 문제(16%), 성 역할 (11%), 그리고 당국의 대우(1%)는 가장 적게 나왔다. 사회적 대우 속에는 여성의 차별과 비하, 지도자 기회의 박탈, 자기주장의 낮은 기회, 음주흡연의 부자유, 택시나 가게를 아침에 이용시 거부감, 외모나 옷차림에 신경 쓰기 등이 나왔고, 자유로움 속에는 외박·귀가 시간의 제한, 성폭력·성희롱의 우려, 여행 제약, 옷차림의 부자유, 술자리에서의 접대 강요, 여성다움의 강요들을 경험하였으며, 금전적 문제 속에는 채용·승진에서의 차별, 같은 일하고 보수 적게 받기, 미용이나 목욕시 상대적으로 불리, 아르바이트 자리의 제한 등을 들었다. 성역할 속에는 요리, 청소, 육아 등 집안 일을 여성전담으로 인식, 명절이나 MT에 가서도 요리 및 설거지하기, 성묘나 제사시 여성 배제, 생리와 임신 등을 들었다.

각 조건별 참가자들이 각 내용 범주별로는 표 3과 같이 나왔고, 이를 각 범주별 2(생각조건: 특혜 또는 불리) × 2(참가자의 성: 남성 또는 여성)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성 역할 범주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특혜보다는 불리가 더 많았고, 남성은 특혜, 여성은 불리한 점을 더 많이

경험하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F(1,158)=54.14, p<.001$). 당국의 대우에 있어서는 각 조건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158)=2.93, p>.05$). 금전문제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고($F(1,158)=.193, p>.05$), 특혜 및 불리 조건별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F(1,158)=.738, p>.05$), 남성의 특혜의식과 여성의 불리 의식이 강하게 나오는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F(1,158)=5.416, p<.05$).

자유감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보고하였고($F(1,158)=17.42, p<.001$), 남성은 특혜적인 사건, 여성은 불리한 사건을 더 많이 기억하여 2원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F(1,158)=43.98, p<.001$). 사회적 대우에 있어서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였고 ($F(1,158)=5.81, p<.05$), 남성은 유리한 경험을, 여성은 불리한 경험을 더 많이 기억하는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F(1,158)=14.17, p<.001$). 타인의 도움에 있어서는 여성의 특혜가, 남성의 불리가 두드러졌다($F(1,158)=6.89, p<.001$). 이들 결과는 성 역할, 자유감, 사회적 대우, 타인의 도움 등의 범주들에서 남녀의 유리한 사례와 불리한 사례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리 및 불리한 생각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이 연구에서는 표 4에서처럼 정신건강의 정도를 보는 네 가지 척도상의 반응들을 보았는데, Cronbach 알파 계수는 개인적 자존심(.84), 집단 자존심(.86), 자신에 대한 만족(.70), 그리고 자기 집단에의 정서적 애착(.68)에서 모두 신뢰롭게 나왔다.

각 측정치별로 각 참가자들의 회상빈도를 통제변인으로 하고 2(생각조건: 유리 및 불리) X 2(참가자들의 성별)의 ANCOVA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한 만족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만족을 보였고($F(1,157)=9.35, p<.01$), 자신이 속한 성 집단에 대한 정서적 애착에서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F(1,157)=4.24, p<.05$). 이 결과는 남녀가 자기가 속한 집단에의 만족이나 정서적 애착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5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에의 만족과 자기 집단에의 정서적 애착을 포함한 네 측정치 모두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남녀별, 생각조건별 차이는 보이지 않아 가설 6은 지지되지 않았다. 즉 남성들이 유리한 사례를 떠올리게 했을 때 집단 자존감이 낮아지고, 여성들에게 불리한 경우를 상기하게 했을 때 개인 자존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과편파가 나오지 않은 것이 남녀에게 특혜와 불리를 생각하게 한 점화효과 때문이라는 설명은 할 수 없었다.

표 4. 남녀 및 생각조건에 따른 범주별 반응 측정치

측정치	생각조건		
	유리	불리	계
참가자의 성별			
개인 자존심			
남	5.145(.95)	4.750(.81)	4.947
여	4.682(.96)	4.831(.79)	4.756
자신에 대한 만족			
남	4.118(.86)	4.199(.96)	4.157
여	3.867(.84)	3.638(.66)	3.754
집단 자존심			
남	3.713(.39)	3.837(.26)	3.775
여	3.718(.29)	3.752(.26)	3.753
성집단의 정서애착			
남	5.415(.95)	5.398(.82)	5.401
여	5.088(.99)	5.100(1.00)	5.096

V. 논 의

자기가 속한 성 집단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생각하게 한 결과 남녀집단 별로 상이한 사례들을 떠올렸고, 집단에의 애착심과 만족감이 남성집단에서 더 높게 나왔다. 응답의 내용을 6가지 범주들로 나누어 보았을 때 미국 등의 자료와 다른 응답패턴을 보여 문화적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심리적 안정감을 재기 위한 개인적 자존심, 집단적 자존심, 내집단에의 만족감과 정서적 애착에 있어서 유리 및 불리한 생각을 하게 한 점화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집단과 여성집단이 각각 일상생활 중에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가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두 점화조건에서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해석을 요한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시사되듯이 남성들이 유리한 점을 떠오르게 하여 집단죄의식과 이로 인한 집단자존심의 감소로 성과편파가 생겼다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한 것은 단지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핵심 집단원들에게 일상생활 중에 자신들이 속한 남성집단의 유리한 점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집단소속을 집단적으로보다는 개인적으로만 생각해 왔기에 이 연구에서 하게 한 과제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더 새롭고 더 강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여성들은 열세한 집단원으로서 자신들의 불리한 사례들이 일상적인 것이어서 일시적인 생각을 조작한 것이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수 있다. 남성들에게 유리했던 상황을 상기하게 한 것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들에게서 개

인적 자존심보다 집단적 자존심과 관련된 개인적 안녕감의 측정치들에 있어서 훨씬 더 낮은 점수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그러한 유리 및 불리한 생각을 하게 한 것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지각하는 지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아서 실제로 그러한 조변이 효과적이었는지는 분명하지 못하다.

또, 우리 문화권에서는 남성우위의 정도가 선행 연구가 진행된 문화권의 경우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서 남성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식이 유의하게 클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남성이 비합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상기하게 하였더라도 집단적 자존감의 수준을 유의하게 낮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유리 혹은 불리한 상황을 떠올리게 한 효과를 분명히 보려면 이 효과를 따로 볼 수 있는 통제집단과 비교가 있었어야 하였다. 즉, 특혜를 입은 사례를 떠올리게 한 것이 여성의 안녕감은 높이고 남성의 안녕감은 떨어뜨렸는지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한 조건과 비교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불리한 상황을 떠올리게 한 것이 남성의 안녕감을 높이고 여성의 안녕감은 낮추었는지는 기저선 비교를 해서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불리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 것은 차별대우를 받은 것이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반추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각과 여성의 우울증이 상관이 있다는 연구들이나 통제감 지각의 정도를 낮춘다는 연구들도 있다. 여성들로 하여금 불리한 생각을 점화시켜 안녕감을 낮추리라는 가설은 부정적 결과를 편견 탓이라고 돌림으로서 자존심을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과는 불일치하는 것이다. 가설적인 자기보호적 패턴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나왔다(Crocker & Major, 1989).

이 연구는 우리 나라의 문화권에서 남녀의 두 집단들에서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자신들이 속한 성 집단에서 유리한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최초의 정보를 제공한 의의가 있다. 그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일치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각 범주별로 서로 반대의 예(남자에게 유리한 자유는 여성에게는 부족한 불리점)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 집단에게 유리한 것이 다른 집단에게는 불리한 이러한 낮이고 보완적인 모습은 성 집단관계에서만 특이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자료에 근거하여 남성들에게 유리한 사례들(주로 사회적 대우)을 여성들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에게 유리한 사례들은 남성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속한 집단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하여 상대집단이 겪게 될 결과로 주의를 돌리게 한다고 하여 동일한 심리적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집단에 근거한 죄의식이 중요한 매개요인이라면 다른 집단의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집단간 차이를 가져온 것이 자기 집단 탓이라고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속한 집단이 누리는 특혜를 생각하게 했을 때의 죄의식을 피하는 한가지 방법은 자기 집단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상대 집단이 누리지 못하는 면에 주목을 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내집단의 성과나 외집단의 성과를 유리하거나 불리한 면에 주목하도록 하는 조변을 한 후속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두 집단에 의하여 제기된 유리한 사례와 불리한 사례의 상대적 중요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꽃을 받는 것과 같은 영향이 낮은 사례와 높은 봉급을 받는 것과 같은 영향이 큰 사

례와는 동등한 무게로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녀의 유리 및 불리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 효과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점화를 조변하지 않은 통제 집단과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노마, 배성의(1999). 양성평등의식 프로그램의 개발. <http://community.kongju.ac.kr/sunny>
- 김양희, 정경아(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3-44.
- 김혜숙(1994). 한국자아존중감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103-116.
- 매일경제(2001. 8. 19). 정부 출산을 하락 억제 나서.
- 홍기원(2000). 집단소속감, 평가방법 및 정보의 공개가 내외집단원의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67-179.
- Billig, M. (1992). *Talking of the Royal Family*. London: Routledge.
- Branscombe, N. R. (1998). Thinking about one's gender group's privileges or disadvantages: Consequences for well-being in women and me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167-184.
- Branscombe, N. R. & Ellemers, N. (in press). Coping with group-based discrimination: Individualistic versus group-level strate-

- ges. In J. K. Swim & Srangor (Eds), *Prejudice: The Target's Perspective*.
- Branscombe, N. R., Slugoski, B., & Kappen, D. (1997). Collective guilt: Measuring its components and its consequence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Kansas.
-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y Bulletin*, 86, 307-324.
- Crosby, F. (1982). *Relative Deprivation and Working Wom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osby, F., Pufall, A., Snyder, R. C., O'Connell, M., & Whalen, P. (1989). The denial of personal disadvantage among you, me, and all the other ostriches. In M. Crawford & M. Gentry (Eds), *Gender and Thought*(pp.79-99). New York: Springer-Verlag.
- Ellemers, N. (1993). The influence of social-structural variables on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vol. 4, pp. 27-58). New York: Wiley.
- Herek, G. M. (1987). Can functions be measured? A new perspective on the functional approach to attitud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85-303.
- Helms, J. E. (1992). *A Race is a Nice Thing to Have: A Guide to Being a White Person or Understanding the White Persons in Your Life*. Topeka, KS: Connect Communications.
- Katz, I., Wackenhut, J., & Hass, R. G. (1986). Racial ambivalence, value duality, and behavior. In J. F. Dovidio & S. L. 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 35-60). Orlando, FL: Academic Press.
- Lambert, W. W., Solomon, R. L., & Watson, P. D. (1949). Reinforcement and extinction as factors in size esti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39, 637-641.
- Lemance, G. (1974). Social differentiation and social origina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 17-52.
- McIntosh, P. (1992). White privilege and male privilege: A personal account of coming to see correspondences through work in women's studies. In M. L. Anderson & P. H. Collins (Eds), *Race, Class, and Gender*(pp. 70-81). Belmont, CA: Wadsworth.
- Mullen, B., Brown, R., & Smith, C. (1992). Ingroup bias as a function of salience, relevance, and status: An integr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03-122.
- Mummendey, A. & Schreiber, H. J. (1983). Better or just different? Positive social identity by discrimination against of differentiation from out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389-397.

- Peres, Y. (1971). Ethnic relations in Isra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6, 1021-1047.
- Reskin, B. & Padavic, I. (1994). *Women and Men at Work*: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 Ruggiero, K. M. & Taylor, D. M. (1995). Coping with discrimination: How disadvantaged group members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26-838.
- Spears, R. & Manstead, A. S. R. (1989). The social context of stereotyping and differenti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 101-121.
- Tajfel, H. (1974).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r. *Social Information*, 13, 65-93.
- Turner, J. C.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 J. Lawer (Ed.), *Advances in group processes: Theory and research*(Vol. 2, pp. 77-121). Greenwich, CT: JAI Press.
- Van Knippenberg, A. (1989). Strategies of identity management. In J. P. van Oudenhoven & T. M. Willensen (Eds), *Ethnic Minorities: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pp. 59-76). Amsterdam: Swets & Zeitlinger.
- Van Knippenberg, A. & Van Oers, H. (1984). Social identity and equity concerns in intergroup percep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351-362.
- Wann, D. L., & Branscome, N. R. (1993). Sports fans: Measuring degree of identification with their team.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Psychology*, 24, 1-17.

Effects of one's gender group's privileges or disadvantages upon the well-being and outcome-evaluation in women and men

Ki-won Hong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Hoseo University

Thought about group-based privileges or disadvantages were expected to have different consequences for outcome evalu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epending on whether the individual is a member of a core- or peripheral-status group. To test this hypothesis, women- and men-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consider the ways that their gender group membership has resulted in either beneficial or detrimental outcomes in their lives. There was no outcome evaluation bias and differences in well-being measures. And more advantage cases in men and more disadvantage cases in women were reported. But no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including group self-esteem and individual self-esteem were evidenced. So, we can not interpret those result that among high-status group members, thinking about privilege can evoke guilt and taint one's group image, whereas thinking about disadvantage among low-status members can augment personal internal attributions for the outcomes. Justness in evaluation judgment situation was emerged by priming each gender's privileges or disadvantage, and resulted in little evaluation bias instead. Discussion focuses on the cultural differences in each gender's discriminative occasions between American culture and Korean culture and implications that the operations of several types of mechanisms have for the reasons of high- and low-status group members when their groups are portrayed as exerting either negative or positive effects on their lives.